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6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공모전 수상작 소개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목 차

심사평	심사위원장 정예영 교수	07
수상소감	최우수상 박우정	11

수상작 소개

최우수상	나의 20대를 돌보아준 서울대학교에게	15
우수상	나에게 보내준 고마운 응원의 박수!	21
	장학생 어머니입니다.	23
장려상	아기 새의 비행	27
	꿈을 이룬 사람보다는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29
	나를 살려준 고마운 장학금	33
	서울대 옥상정원에서 가꿔진 나	35
	‘세상’이라는 친구를 가지게 된, 정성(精誠)스런 청년	39

제6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공모전 수상작 소개

심사평

심사평

정 예 영 교수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발전기금 수기 공모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소했다. ‘장학금 수기도 공모하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응모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장학금 수기란 수혜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받은 커다란 도움에 대해, 그리고 기부자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따뜻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소 진부하고 형식적인 글로 인식되었다. 이런 글을 의뢰나 부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쓴다는 것도 의아했다.

이런 나의 삐딱한 편견들은 최종후보작들을 읽으면서 서서히 감동과 숙연함으로 대체되었다. 글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진심이, 열정이, 꿈이 내 의문들을 불식시켰다. 응모작들 속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치열하게 살아 가는 이야기, 좌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 베품과 보은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그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한 시점에서 나눔을 경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수기를 통해 또 한번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경험에 대한 나눔을. 애초에 진부할 수 있는 소재에 개인적인 경험의 활력과 진정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글의 힘을 문학 전공자로서 새삼 확인하며 흐뭇했다. 진부한 이 심사평도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박우정씨의 〈나의 20대를 돌보아준 서울대학교에게〉는 장학금 덕분에 대학 생활 내내 학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경험을 담백하고 명료한 문체로 풀어써서 호평을 받았다. 장학금이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인 격려의 의미도 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수혜자에서 기부자의 위치로 이동하여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나가는 실천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에 우수상을 받은 이종자씨의 수기, 장려상의 안건씨와 전재우씨의 수기도 이런 선순환에 기여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명하여 장학의 정신이 갖는 전염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학부모이신 이종자씨의 글은 장학금에는 자식을 길러내는 부모의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고, 사업적인 수완을 장학 기금을 만드는 데 발휘한 안건씨의 글을 읽고 나이와 경제적인 수준을 막론하고 뜻이 있으면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40대에 다시 학업의 길에 오른 우수상 수상자 김순영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진로를 찾아간 장려상의 임진경씨와 전재우씨도 장학금이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수단이 된 경우를 증언하고 있다. 장려상을 받은 김도연씨의 수기는 선배들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이음 장학금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신선했다. 역시 장려상 수상작인 임진수씨의 글은 응모작 중에 가장 유려하고 문학적이었다. 근로봉사 장학생으로서 옥상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 풍경에 눈을 뜨게 된 경험담의 독창성이 돋보였다.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그리고 수상하지 못했지만 성의껏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서 공유하길 원했던 다른 응모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매학기 학과로 내려와서 배정하는 장학금이 이런 소중한 마음의 산물이고, 이런 마음들 덕분에 학문에 대한 열망이 계속 타오를 수 있을 것을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이런 마음이 널리 알려지고 전염되길 기원한다.

제6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공모전 수상작 소개

수 상 소 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리과학부 학사 졸업예정자인 박우정입니다. 서울대 발전기금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이 단상에 설 기회를 마련해주신 서울대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자리에 착석해주셔서 더욱 값진 기회를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입학 후 처음으로 뻗었던 성인으로서의 첫 발걸음 앞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서야 처음으로 마주한 빈곤의 늪은 예상보다도 깊었습니다. 경제활동을 위해 저녁 5시 이후의 수업은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에 학문에 대한 꿈과 열정은 온데간데없이 매일같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편의점과 천원의 학식을 찾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는 제게 국내 최고의 스승이었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각종 악재로 공부를 포기하고 휴학을 고민하던 날, 선한인재장학금과 자연대 발전기금 장학을 신청하라고 행정실 선생님께 안내받았던 날, 선정 후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그렇게도 든든했습니다.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그러나 저녁에 열려서 못 들었던 전공수업을 이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학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현실적 문제에 포기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8년간의 지원으로 저도 드디어 졸업예정의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부생 중에서도 저를 특별히 기억해주셨던 행정실 선생

님들 덕분에 학과사무실을 지날 때마다 늘 따뜻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정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인입니다. 제가 공부를,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의 20대를 아낌없이 돌봐준 서울대학교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난 달, 작은 금액을 기부하여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그 감사한 마음을 보탤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가 저와 비슷한, 혹은 저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훌륭한 졸업생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감사합니다.

2023. 02. 28. 공모전 수상자
박우정

제6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공모전 수상작 소개

최우수상

나의 20대를 돌보아준 서울대학교에게

박 우 정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어느덧 8년, 긴 학교생활에서 배운 지식만큼이나 서울대학교가 내게 전한 가르침은 비단 지식뿐만이 아니었다.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16학기, 그 긴 시간동안 있었던 나의 서울대학교 생활은 늘 발전 기금이 함께 했다.

2015년에 처음 입학한 나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3월에 학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먼저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등록금은 서울대학교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왕복 3시간 30분 거리를 통학해야 했던 내게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비는 필수였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설렘은 잠시 뒤로, 아무 경력도 없던 20살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각 지역으로 가서 수능 과외를 하는 일이 전부였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시 어김없이 1분위였던 나의 환경은 수업 듣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외곽지역에 가서 과외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랬던 1학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당시 기부금으로부터 처음 신설되었던 장학금인 <서울대학교 선한인재 장학금>을 행정실 선생님께 전달받았을 때 느꼈던 기쁨과 안도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선한인재장학금 덕분에 정말 편하게 학교수업에 집중하며 공부할 수 있었고, 나의 성적은 상승곡선을 그리며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받아볼 수도 있었다. 이로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학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모두 선한인재 장학금 덕분이었다.

한편 군 휴학 기간을 마치고 3학년으로 복학했을 때에는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안그래도 어려웠던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실직하신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 보탬을 하지 않으면 학업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였다. 각종 소일거리를 찾아다니며 학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부량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사 휴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기까지 했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군 휴학 기간과 복학 사이에 어려운 형편을 보태기 위해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과정에서 부풀린 소득으로 정산되어 소득분위를 오르게 했고, 이는 결국 선한인재 장학금 탈락이라는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었다. 가정은 더 어려워졌는데, 소득분위가 올라서 필수 지출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해당 시기는 지금 돌아보아도 가장 어려운 순간으로 기억될 정도로 막막했다.

이러한 시기에도 서울대학교는 내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제 이름과 학년까지 기억해주셨던 행정실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해당 신청 기간에 전화를 주시면서 장학금을 소개해주셨다. 바로 SNU 긴급구호장학금과 자연과학대학교로부터 나온 희망사다리장학금이였다. 저학년 시절, 선한인재장학금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만들어 둔 좋은 성적을 통해 몇 가지 절차를 걸쳐 자연과학대학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었고, 저를 향한 학과의 보살핌으로 SNU 긴급구호장학금까지 선정되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여 어쩔 수 없이 초과 학기에 재학하여 초과학기 제한으로 지원이 끊긴 장학금들이 정말 많았고, 올라버린 소득분위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힘들었던 학기가 많았는데 이러한 특수

한 환경도 잘 이해해주셔서 저소득층을 위한 학기 등록장학금까지 끊임없이 알려주고 추천해주신 행정실 선생님, 나아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8년의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의 도움에 힘입어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이번 2023년 2월에 졸업하게 되었다. 내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을 포함하여 모두 36,760,500원이다. 이는 나의 20대를 책임져 준 굉장히 거대하고 따뜻한 장학금이었다. 2022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학과 행정실 길목을 지날 때마다 늘 반갑고 따뜻했다. 반드시 졸업하기 전에,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열심히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접속하여 이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리라 다짐했다.

2022년 12월 12일, 개교기념일 행사로 우연히 받았던 봉사활동 체험 후기 공모전에서 받았던 상금에 일부를 보태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1,000,000원을 후원하였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나의 깊은 인연을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나처럼 성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조차 쉽지 않았던 서울대학교의 누군가에게 훌륭하게 쓰이길 바란다. 8년간 나를 보살펴 준 모교에게 늘 감사하며, 이후에도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도약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제6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공모전 수상작 소개

우수상

나에게 보내준 고마운 응원의 박수!

김 순 영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2년은 내 인생에서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02학번이었던 대학 시절과 대학졸업 후 10년만에 석사과정, 20년 후 박사과정으로 오래간만에 학생이 되었다. 석사 공부할 때 막연히 박사 공부에 대한 동경과 학문에 대한 갈증은 있었지만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았다.

그 후 직장생활, 결혼과 두 아이의 출산은 이러한 생각을 할 틈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돌아갔다. 직장인, 아내, 엄마, 며느리, 딸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은 내 자신을 쪼개고 쪼개어 겨우 따라갈 수 있는 치열함 속에서 살았다. 그 후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는 직장에서는 중견 관리자가 되었다. 그런데 종종 한 편에 뭔가 모를 씁쓸함과 허전함이 자리 잡았다.

내가 나로 채워지지 못한다는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이곤 했다. 그러다가 남편의 본사 발령으로 가족 모두 울산에서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육아 휴직을 하였고 집으로 옹기종기 모여든 신랑과 아이들 챙기느라 어느 때보다 지쳐갔다. 그러다가 문득 박사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을 계기로 직장 생활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손을 놓았던 영어공부는 텀스 응시를 시작으로 원서 접수, 면접까지 어느새 진행되었다. 합격 발표까지는 꽤 긴 기다림이었다. '합격'이라는 감격의 순간은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대학원 입학 후 강의 수강을 위해 서울대 입구에 들어설 때면 매번 나도 모르게 흥분되고 또한 감사했다. 10살 아이가 이제 대학원 공부하러 간다

니깐 이런 말을 했었다. “엄마, 엄마는 무슨 40살이 학생이야? 그럼 이제 엄마 나랑 똑같은 학생이야?” 학생으로 지낸다는 것은 20대, 30대 때처럼 녹록한 것은 아니었다. 꿈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나이에 비추어 과도한 욕심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가정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역할인가 등등의 다양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

6살, 10살인 아이의 육아와 신랑의 더 바빠진 회사생활로 인해 시간적으로 빠듯했고, 꽤 잘 벌던 월급이 더 이상 없어지니 금전적으로 빠듯해졌다. 박사공부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사치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더불어 더 심각해진 어머니의 암 진행 속도는 더욱 부담이 되었다.

그러던 중 무사히 1학기를 마치고 큰 기대 없이 혹시나 싶어 장학금을 신청하였다. 현재 재학 중인 환경대학원 고주 노유희 초대원장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금액을 떠나서 너무나 감격이었다. 잘하고 있다고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무언의 응원인 거 같아서 그간의 두려움을 다소 감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내가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포부와 합격의 감격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다. 2학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수업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해갔다. 내가 몰랐던 새로운 학문의 세계, 정말 그 재미는 까만 밤이 하얀 새벽이 되도록 계속되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장학금이 약하게 자라는 나의 새싹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과 자극이 되었다. 2학기 때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의 편지를 쓰는데 마음이 울컥하였다. 나도 이처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금 되새겼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가 가지는 무게감은 분명히 존재한다. 스스로도 은연중에 느끼던 그 부분을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방향을 틀게 해주었다.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도록 응원과 큰 박수로 말이다.

장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이 종 자
인문대학 학부모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때 학교 견학을 다녀와서 책상위에 '서울대학교 입학이 목표'라고 적은 메모를 본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학교인지 알고 저러나 싶어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딸 아이는 학교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울대라니. 그저 저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라 부산대, 근처의 국립대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딸 아이는 수시특별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인문학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딸이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기뻐지만 엄마로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생할 것이 뻔했고, 어린 동생도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레 부산 사범대로 진학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딸은 서울대학교에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저에게 기숙사비와 매달 용돈 20만원만 지원해 달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알아서 생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딸은 제 품을 떠나 멀리 떨어진 서울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저는 딸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해줘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

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적은 돈이지만 일만 원씩 기부를 한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부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과 그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끝마치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딸은 우리 가족에겐 최고의 딸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누구라도 자신의 가족에게 최고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이어 지도록 적은 돈이지만 기부 활동이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딸이 어떤 길을 가던지 항상 응원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상작 내용 일부를 편집하였습니다.

제6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공모전 수상작 소개

장 려 상

아기 새의 비행

김도연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부터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노래 부르며 다녔습니다. 중학교의 장학생으로 열흘 동안 하와이에 파견 가기도 하였고, 고등학교 방문학생으로 온 미국 친구들과 매일 급식을 같이 먹으며 얘기도 하였으며, 대학교에서는 미국 문화에 대한 고급영어 수업인 “문화와 사회” 과목을 수강하며 미국의 문화를 알아가고 싶다는 열망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 교환학생을 가는 것만이 미국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던 와중, 이음 장학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팝 스타(pop star), 팟캐스터(podcaster), 유튜버(youtuber)들의 거주지가 밀집되어있는 대중문화의 중심지 LA에 가게 되어서 더욱 기뻐했습니다.

“날 것을 경험해보아라.”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창회 선배님 중 한 분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음 장학 프로그램이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는 점은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행 가이드나 대중매체를 거친 가공된 환상으로서의 미국이 아니라, 무작정 부딪혀보며 있는 그대로 날 것의 미국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으로서의 생활을 해보고 싶었기에 이음 장학 프로그램을 하는 40일을 모두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냈습니다. 날 것의 캘리포니아를 경험하는 방법은 그 곳의 사람들에 스며드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끌려 무작정 마주치는 사람마다 대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날씨 탓인지 사람들은 정말 유쾌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스몰 토크로 시작한 대화가 몇 십 분간 이어지며 상대방이 품고 있는 세계를 통해 제 삶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멜로즈 거리의 한 디자이너의 권유로 새로운 패션을 도전해볼 수 있었고,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귀가하는 우버 기사님의 “대학교는 왜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과 같이 한국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타 안나의 멕시칸 푸드 트럭 점원들과 짧은 스페인어로 대화하면서 다시금 언어 공부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었고, 식스플래그 놀이공원에서 만난 “스케이터 보이” (실제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는 친구였습니다)와 서로 전혀 다른 일상과 취미를 공유하면서 저를 심장 뛰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음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날 것의 캘리포니아를 경험하며 삶에 있어서 더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이음 장학 프로그램을 가능케 한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짧게나마 만나 뵈 남가주의 서울대학교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멋진 일을 하시는 선배님들을 뵈며 저 또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음 장학 프로그램 이후 저는 미국의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확신이 들어 2023년 한 해 동안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할리우드” 과목과 같이 평소에 관심 있고 궁금했던 주제에 관한 수업을 듣고, 미국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할 생각에 벌써 설렙니다. 막연히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노래만 부르던 아기 새 시절이 엇그제 같았는데, 이음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날갯짓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보다는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안 건

공과대학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나의 꿈은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처음 장학재단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읽으면서였다. 스탠퍼드 전 총장이자 현재 알파벳의 회장인 존 헤네시의 자서전이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나이트와 함께 둘의 이름을 따 만든 나이트-헤네시 장학금을 출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작성한 책이다. 스탠퍼드 대학교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든 그의 리더십과 그가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업이 미래의 후학을 기르는 장학사업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꿈을 쪼개 작은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씩 이뤄나가자. 그렇게 "장학재단 세우기"라는 나의 새로운 꿈은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수십억의 자본을 모아야만 장학재단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고 키워나가면 된다.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것은 꼭 큰 숫자가 아니다. 찾아보니 대학생들이 직접 자금을 마련하고, 직접 선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없었다. 많은 금액을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대 공대생들이 모여 직접 미래의 공대생이 될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면, 그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공대생들도 정말 많이 배우고, 고등학생들에게도 단순한 금액적인 도움뿐 아니라 동기부여와 직접적인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대학생이 직접 기금을 마련하고, 선발까지 하는 장학금

만들으로써 사회에는 뜻이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만들 수 있는 임팩트에 대한 생각거리를 만들어준다.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가슴 뛰는 비전과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으로 는 책 인세가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함께 책을 쓸 사람을 찾았다. 항상 만나서 공학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보였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좋아하는 공학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해보자 제안했다. 책 출간이라는 큰일을 조그만 일로 나눠 시간 순서대로 배치했다.

그리고 공대생이 직접 미래에 공학도들을 위해 공학의 아름다움을 이야기 하는 이 책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책을 통해 얻은 인세로 장학재단도 세워보자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가슴 뛰는 열정이 함께 하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나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하니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었다. 10곳이 넘는 출판사가 함께하자고 했고, 그중 청소년들에게 책을 가장 잘 홍보해줄 수 있을 출판사와 계약했다. 많은 청소년에게 반응이 있었다. <공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는 출간 후 청소년 분야 top2에 올랐고, 첫 6개월간 7500+부가 팔렸다. 곧 10,000부 이상이 팔릴 것으로 기대된다.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갈 때, 그 무엇보다 짜릿하다. 그렇게 인세를 먼저 1200만 원을 모았고, 이를 서울대 공대 발전기금에 기부했다. 서울대 공대 학장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신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학교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학생 센터 (공우) 비전 장학금"을 알리고 학생들의 지원을 받는다. 먼저 처음 1회는 인세를 통해 장학금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기업의 도움을 받아볼 계획이다. 장학생 선발을 할 팀도 결정

됐다. 이제 어떤 기준으로 고등학생들을 선발할지 고민하는 단계다. 그 고민을 끝내면 공문을 작성하고, 정말로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아 한 명 한 명 검토해볼 예정이다.

가슴이 뛰고 신나는 일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선물을 받기도 한다. 기부를 하니 '공과대학 2022년 감사의 밤'에 초대받았다. 수십억을 기부하신 회장님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분들이 지난 수십 년간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를 세계 GDP 11위권에 달하는 나라로 만든 주역들이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과거는 나의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꿈을 꾸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동료들을 모아, 신나게 그 일을 이뤄나갔을 뿐이었다. 그들의 삶의 무게에 감탄했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조금 더 확신이 생겼다.

장학금을 주는 사람으로서 배운 몇 년간 경험이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을 때 보다 더 가치 있었다.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서 나의 페르다임을 바꿨다. 이 장학금을 정말로 고등학생들에게 줄 때, 그리고 그 이후 이 장학금을 더 확장해 나갈 나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를 살려준 고마운 장학금

임진경
간호대학 간호학과

저에게 2009년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한 해로, 서울대 합격이라는 가장 행복한 일이 있었던 해이면서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였던, 불행하기도 했던 해였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컴퓨터 화면 속 합격이라는 글자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어려움을 모두 씻어줄만한 값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남아선호사상에 찌들어있던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이루어야 하는, 딸에게 빼앗긴 아픈 결과이기도 했으니까요. 합격증을 받아들고도 왜 너여야 했냐는 부모님의 모진 소리를 들으며 저는 기쁘게, 또 슬프게 입학하였습니다.

가족의 환영을 받지 못한 것 뿐 아니라 그 해 저희 집은 생활고까지 겹쳐 최악의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숙사도 떨어지게 되어 원룸을 구하는 것이 부담이었고 처음으로 부모님 손에서 벗어나 독립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라북도 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 월세와 교재비 등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당장 그 다음 학기부터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막막하여 신입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힘들었던 수험생활과 가족에게서 벗어났다는 자유감, 목표가 사라진 허무함에 방황도 하며 대학 생활은 더욱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어리석게도 서울대만 가면 이 모든 불행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족의 굴레에서도, 돈 앞에서도 저는 한없이 작아져만 갔습니다.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등록금 문제로 동아리 선배에게 상담을 받던 중 학업

에 충실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만 같던 저에게 한줄기 희망같았고, 더 이상의 방향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학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찍힌 장학금 금액은 그야말로 산소호흡기 그 자체였습니다. 마냥 어리고 여기기만 한 스무살이 전 시기에는 경제적 압박은 너무나도 가혹했기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언제나 삶이 그렇듯 불행 끝에 희망이 싹트고, 그 희망은 자라서 행복을 맺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이 생긴 저는 장학금에 힘을 얻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도 벌면서 점차 안정적인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이상 돈에 쫓기는 생활은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 그것은 3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제 인생에 첫 번째 동아줄이었습니다. 장학금은 그 금액 이상의 희망을 주고 그 이상의 기쁨을 주는 뜻밖의 선물같은 것이었고, 살면서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위로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살아온, 또 살아갈 인생 속에서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주었으며, 되어줄 것을 알고있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믿음을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간호대를 졸업한 이후로도 술하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간호대를 졸업하고 두 번의 이직, 이후로 다시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입학하여 꿈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작은 희망에서 시작된 기회를 발판 삼아 위기 때마다 잘 버틸 수 있었고 비로소 현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장학금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품으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서울대 옥상정원에서 가꿔진 나

임진수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꽃과 화초, 나무, 돌... 자연 그대로도 아름답지만 정원사의 손을 거친 정원에 모인 자연은 더욱 더 특별합니다. 정원이란 공간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연의 멋은 자연스러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가꾸는 일은 사실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학시절 저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옥상정원의 정원관리를 담당하는 근로봉사장학생이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이 더 푸르고 찬란하도록,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원을 예쁘게 유지하도록 힘써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와서 돌아보면 단순히 정원만 가꿨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정원도 함께 가꿔진 게 분명합니다. 도시에 태어나 성장한 저는 아름다운 정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방문하며, 꽃과 화초, 나무에 정이 들었습니다. 이제와서 돌아보면 그 때부터 제가 자연에 반하기 시작하게 분명합니다. 내가 직접 주는 물을 받아 먹으며 싱그러움을 유지하는 식물들, 적절한 위치에 예쁘게 생긴 돌... 정원을 자주 대하다보니 그냥 주어진 자연 환경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대 학내에서 진행되는 근로봉사 기회는 이중전공 이수로 시간에 허덕이는 제게 시간적 물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동시간을 줄여 공부할 수 있었고, 대학생으로서는 시간대비 괜찮은 보수를 받아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대학생활을 보내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서울대 옥상정원하면 생각나는 것은 '풍경 소리'입니다. 힘들게 땀벌에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청소를 하며 주어진 일과

를 완료하면 저는 풍경이 곁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땡땡땡 땡땡~~"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풍경은 한번도 연주된적 없고, 다시는 연주되지 않을 유일무이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가꿔진 자연에 대한 뿌듯함과 동시에 마음을 차분히 달래주는 풍경 소리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한동안 저의 카카오톡 배경사진은 옥상정원에서 찍은 풍경사진이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때의 정취가 저를 미소짓게 하네요.

저는 비록 근로장학금을 받기 위해 옥상정원을 시작하였지만, 그 시간과 경험은 제 인생에 최소한 2가지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색의 풍성함'입니다. 저는 정원을 참 사랑하게 되었고, 정원을 거닐고 머물며 떠오르는 사색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데이트할 때도 자연이 푸른 명소들을 찾아다녔고,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자 코스 중에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정원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꽃은 저마다의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 봄에 빨리 피고 겨울에 늦게 피는 것 같지만, 긴 시간의 호흡으로 보면 차이가 없다는 것. 아름다운 정원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정원사의 노고와 이 정원을 기획한 설계자가 있다는 것 등등 자연을 즐기는 사색이 확장되었고,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통해 보다 폭넓고 깊게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즐길 수 있게 된 것... 옥상정원을 관리하며 얻은 감사한 기술입니다.

둘째는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근로봉사장학생으로써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시간, 돈, 평화로운 마음, 정원에서 일하는 기쁨 등등 그때는 제대로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언젠가 인생의 후배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미약하지만 더 열심히 성장하여 60대에는 장학

재단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아마도 옥상정원 관리와 같은 양질의 근로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장시켜 간다면, 얼마나 기쁠지, 벌써 가슴이 뛰니다.

10년 전 서울대 옥상정원에서는 저라는 나무가 아름다움 기억을 품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길러졌습니다.

‘세상’이라는 친구를 가지게 된, 정성(精誠)스런 청년

전 재 우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精誠)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어 나오고, 곁에 배어 나오면 곁으로 드러나고, 곁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정성(精誠)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증용 23장 -

I. 들어가며

삶에 대해 정성(精誠)을 다하면서 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세상은 다행히도 그 정성을 외면하지 않았고, 지금껏 세상은 항상 저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는 주변 친척과 친구 어머니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담임선생님의 도움과 모범생 장학금으로 학교생활을 원만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 후에는 성적 우수 장학금과 국가고시반 장학금 등을 통해 학부 우수 졸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조석준 행정대학원 장학금, 이한빈 희망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등 다수의 장학금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기회 그 이상, 즉 정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친구를 가지게 된, 정성(精誠)스런 청년”의 이야기를 짧막하게나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II. 어렵고 힘든 상황, 정성(精誠)을 다하도록 복돋다

“재우야, 얼른 병원을 가 봐야겠다.” 학력평가 도중 담임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약 2년간의 암 투병 끝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3월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봄,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난 후, 어린 나이였던 저는 새벽에 몰래 백과사전으로 ‘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전에는 암이란 ‘고칠 수 없는 나쁜 폐단’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저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 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염없이 혼자 울기만하다가 등교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현실화되고 난 후, 극심한 낙담과 좌절을 경험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욱이, 전교회장 선거를 앞두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는 매일 출근하시고, 어머니가 없으셔서 학교에 오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너가 꼭 전교회장을 해야겠니?”라는 말은 저로 하여금, 세상을 더욱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주변과 세상에는 그 어떤 친구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진심어린 대화를 나눈 끝에, 생각의 전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가난해서 대학에 갈 수도 없으셨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린 나이에 운이 좋게도 경찰공무원을 합격하시고, 첫 월급의 대부분으로 그토록 먹고 싶어 하시던 통닭 한 마리를 사먹던 기억이 선명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돈이 없어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하고 대학 진학도 못하셨기에, 자식인 저에게만큼은 공부와 관련해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당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공무원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시면서, “재우야, 아빠가 공부나 학교 관련해서 전적인 지원을 지금 당장은 못해주더라도 조금만 버텨보자.

내일도 아빠는 퇴근 후에 도서관가서 승진 공부할거고, 재우 너도 무엇이든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정말 미안하다….”

이에, 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극복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를 귀감으로 삼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회장도 포기하지 않고 출마했습니다. ‘전교회장이라는 자리가, 어머니 부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선제로 뽑혀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대표하는 자리 아닌가?’라는 신념하에 열심히 준비하였고,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정성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저를 외면하지 않고, 친구 어머님께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면서 학부모간담회와 운영위원회를 이끌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어머니의 부재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은, 저로 하여금 오히려 어떠한 일이든 정성을 다하도록 북돋았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중·고등학교 및 학부 시절, 나아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생활함에 있어 크나큰 원동력과 자산이 되어주었습니다.

III. 장학금, 정성(精誠)의 의미를 깨닫게 하다

“재우씨는, 정말 성실한 것 같아요.”면담 도중 대학원 석사과정 지도교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이후, 대학원 정규학기 전 과정에서 모든 과목 A+을 받으면서(전체 평점 4.3 / 4.3), 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사실, 대학원 입학 이전에 금전적인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귀감이 되었던 아버지를 보며 공무원이라는 꿈을 키웠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5급 공채 시험(舊 행정고시) 수험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을 조달하고자 과외, 각종 아르바이트, 학원모의고사 검수 및 출제위원, 학원

조교를 병행했지만, 값비싼 학원강의비, 교재비, 생활비, 월세비 등 여전히 금전적인 부담이 잔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험생활 도중 허리디스크가 터지면서, 병원비용 문제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학원 입학 을 고려할 때, 대학원 등록금 문제로 인해 입학을 포기할까도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학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행정학 전공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서칭한 결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강의·연구지원조교나 성적우수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일부 해결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심사숙고 끝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입학을 결심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합격했습니다. 특히, 저는 합격과 동시에 ‘대학원생으로서 정성(精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함으로써 장학금도 받고, 수석으로 졸업도 하자’는 원대한 다짐을 하고 입학했습니다. 물론 대학원 생활은 결코 쉽진 않았지만 이러한 다짐을 유념하며 대학원 생활을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대학원에서 최대학점을 수강하는 가운데, 수업 후에는 자치분권대학 지방자치교육을 수강하고, 적성시험연구소 조교연구원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또한 틈틈이 지도교수님 강의·연구 조교업무를 하면서도 행정대학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못 다한 학교공부와 연구논문작성, 조별 발표준비 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는 기상스터디를 활용하여 일찍 일어나 전날 배운 수업내용을 복습하고, 이동 중에는 자치분권대학 교육과정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 준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원 2학기를 열심히 보낸 결과, 해당 학기 전 과목 A+를 받아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발전기금 장학금(조석준 행정대학원 장학금)도 받음으로써 등록금 전액을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학원 생활에 정성을 다하고자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정규학기도 성실히 보낸 결과, 발전기금 장학금(이한빈 희망 장학금)을 다시

한 번 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나아가 모든 학기 전 과목 A+를 받아 수석졸업 예정자(2023년 8월 예정)라는 부듯한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전체평점 4.3 / 4.3). 이처럼 세상은 저의 정성을 도외시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었으며, 특히 장학금이라는 선물을 통해 금전적인 고민을 한 줍이나 덜 수 있도록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학금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기회를 얻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환한 미소, 그동안 사드리지 못했던 따뜻한 통닭 한 마리를 아버지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감, 그리고 그동안 고시 수험생활에서 수없이 실망과 낙방의 연속이었지만 나도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라는 소중한 가치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장학금은, 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정성이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즉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성스런 마음으로 열심히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세상은 결코 이를 외면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준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했던 제게, 세상은 장학금이라는 자양분을 통해 한걸음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기회가 된다면 수혜자가 아닌 기부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기부자가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정성스런 수혜자가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세상이라는 친구가 생기게 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더 밝고 나은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성이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IV. 마치며

삶에 대해 정성(精誠)을 다하면서 살고자 고군분투해왔습니다. 특히, 세상은 다행스럽게도 저의 정성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항상 저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정성의 의미란 무엇인지 그 중요성에 대해 사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증용 23장에서 강조했듯이, 어떠한 상황이나 작은 일에서도 정성을 다하면 세상은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부자의 정성과 수혜자의 정성이 함께 응축되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제도라는 선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자의 정성과 수혜자의 정성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향후에는 정성스런 수혜자가 아닌 정성스런 기부자가 되어 제가 받은 도움과 가치들을 세상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존재, 그 이상이 되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세상’이라는 친구가 되어준, 정성(精誠)스런 청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精誠) :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전화 02-871-8004 | 팩스 02-872-4149 | 이메일 snuf@snu.ac.kr | 홈페이지 www.snu.or.kr